와우굿앱 무료 전자책 · AI 처음 시작 6권

AI에게 잘 묻는 법

한 문장에서 원하는 답까지, ChatGPT·Gemini·Claude 어디서나 통하는 질문 요령



v1.0 · 확인 날짜 2026-11-08 · 지은이 컴맹 집사

이 책 사용법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1. 한 줄짜리 질문을 네 칸 질문 틀로 바꿔, 내 사정에 맞는 답을 받는다.
2. 받은 답을 그대로 믿지 않고, 틀렸을 수 있는 곳을 골라 확인한다.
3. 개인정보를 넣지 않고 문자 답장, 여행 계획, 서류 요약 같은 생활 일에 AI를 쓴다.

이 책은 ChatGPT, Gemini, Claude 가운데 무엇을 쓰든 똑같이 통하는 방법만 담았다. 가입 방법이나 단추 위치처럼 서비스마다 다른 내용은 와우굿앱의 『ChatGPT 처음 시작하기』, 『Gemini 처음 시작하기』, 『Claude 처음 시작하기』(1~3권)에 있다. 아직 AI를 한 번도 써 보지 않았다면 그 책 가운데 하나로 가입부터 해 두자.

이 책의 질문 요령은 2026년 11월 8일에 세 회사가 내놓은 공식 질문 안내서를 함께 읽고, 세 곳이 공통으로 권하는 것만 골라 정리했다. 장마다 끝에 있는 「그대로 따라 쳐 보세요」 상자의 문장은 그대로 복사해서 아무 AI에나 붙여 넣으면 된다.

1장. 같은 AI인데 왜 답이 다를까



AI는 내 사정을 모른다

옆집 사람에게 "여행지 추천해 줘"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내 나이, 무릎 상태, 가고 싶은 계절을 대충 알고 답한다. AI는 그것을 모른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맞는 평범한 답을 준다. 답이 엉뚱한 것은 AI가 모자라서라기보다, 내 사정을 말해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세 회사가 똑같이 권하는 세 가지

ChatGPT를 만든 OpenAI, Gemini를 만든 구글, Claude를 만든 앤트로픽은 각자 질문 잘하는 법을 공식 안내서로 내놓았다. 세 곳의 말은 표현만 다르고 뼈대가 같다 (2026-11-08 확인).

권하는 것	쉬운 말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쓴다	무엇을 원하는지 짐작하게 두지 말고 그대로 말한다
배경을 알려 준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왜 필요한지 적는다
고쳐 가며 묻는다	첫 답은 초안이다. 마음에 안 들면 이어서 고쳐 달라고 한다

앤트로픽 안내서에는 이런 시험법이 있다. 내 질문을 아무것도 모르는 동료에게 보여 주고 그대로 해 보라고 했을 때 동료가 헷갈려 하면, AI도 헷갈린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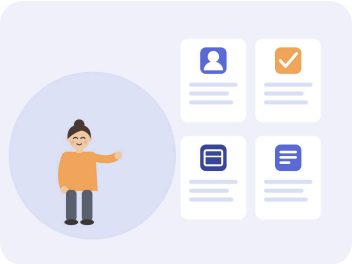
(2026-11-08 확인).

짧은 질문도 괜찮다

처음부터 길게 쓸 필요는 없다. "오늘 저녁 반찬 뭐 하지?"로 시작해, 답을 보고 "아이도 먹을 수 있게", "20분 안에"를 덧붙여도 된다. 이 책의 질문 틀은 답이 자꾸 엉뚱할 때 꺼내 쓰는 도구다.

처음에 「여행지 추천해 줘」 한 줄을 보내 두고, 2장을 읽은 뒤 같은 질문을 다시 해서 두 답을 비교해 보자.

2장. 네 칸 질문 틀



역할 · 할 일 · 배경 · 모양

구글의 공식 안내서는 좋은 질문의 네 요소로 역할, 할 일, 배경, 형식을 꼽는다 (2026-11-08 확인). 이 책에서는 형식을 "모양"이라고 부른다.

칸	뜻	예
역할	AI가 누구처럼 답할지	"국내 여행을 잘 아는 안내원처럼"
할 일	무엇을 해 달라는지 (동사로)	"1박 2일 일정을 짜 줘"
배경	내 사정, 꼭 지킬 것, 빼야 할 것	"무릎이 약한 부모님과, 계단 적은 곳으로, 운전은 2시간 이내"
모양	답의 길이와 모양	"시간표로, 장소마다 이유 한 줄씩"

네 칸을 다 채울 필요는 없다. 구글 안내서도 몇 칸만 써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칸은 할 일이고, 그다음은 배경이다.

나쁜 질문과 좋은 질문

한 줄 질문	네 칸 질문
여행지 추천해 줘	국내 여행을 잘 아는 안내원처럼 답해 줘. 무릎이 약한 부모님과 갈 1박 2일 바닷가 여행지 3곳을 추천해 줘. 오래 걷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표로 정리하고 이유를 한 줄씩 붙여 줘.
문자 써 줘	30년 지기 친구에게 보낼 생일 축하 문자를 써 줘. 반말로, 세 줄 이내, 이모티콘은 하나만. 너무 거창하지 않게.
이거 요약해 줘	아래 안내문을 70대 어머니께 전화로 설명할 거야. 꼭 해야 할 일과 날짜만 다섯 줄 이내로 쉬운 말로 정리해 줘.

"하지 말 것"을 적은 한 줄

배경 칸에는 원하는 것만큼 빼야 할 것도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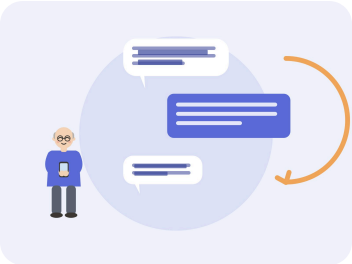
> **컴맹 집사의 경험**
>
> 처음에는 "강아지가 왕이고 내가 집사인 앱 만들어 줘"라는 한 문장만 AI에게 던졌다. 결과는 "당신은 훌륭한 집사입니다!" 한 줄이 전부였다. AI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걸 나도 정확히 몰랐다. 원하는 것과 조건을 적어 다시 보내자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 마지막 줄 "사진 업로드와 공유는 아직 넣지 마"가 특히 중요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해 두지 않으면 AI는 친절하게 이것저것 덧붙인다. (출처: 와우굿앱 『누구나 따라 하는 쉬운 웹앱 제작 실전 가이드』)

배경 칸에 "70대 어머니가 읽을 거예요"처럼 읽을 사람의 수준을 한 줄 적으면, AI가 낱말과 설명의 깊이를 맞춘다.

✎ 그대로 따라 쳐 보세요

국내 여행을 잘 아는 안내원처럼 답해 주세요.
무릎이 약한 부모님과 갈 1박 2일 바닷가 여행 일정을 짜 주세요.
서울에서 출발하고, 운전은 편도 2시간 이내, 계단이 많은 곳은 빼 주세요.
시간표 모양으로, 장소마다 고른 이유를 한 줄씩 붙여 주세요.

3장. 예시 보여 주기와 이어서 고치기



예시 하나가 긴 설명보다 낫다

원하는 말투나 모양이 있으면 설명하기보다 예시를 하나 보여 준다. 앤트로픽 안내서는 예시가 답의 모양, 말투, 짜임을 잡는 가장 믿을 만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2026-11-08 확인).

설명만 할 때	예시를 보여 줄 때
짧고 정감 있게 써 줘	아래처럼 써 줘. 예: "김장 잘 끝났어? 허리 조심하고, 다음 주에 반찬 가지러 갈게."
표로 만들어 줘	이런 모양으로: 날짜 / 할 일 / 준비물

모자란 정보는 AI가 묻게 한다

내 사정을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모를 때는 이렇게 덧붙인다. "답하기 전에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먼저 질문해 줘." 그러면 AI가 출발지, 예산, 인원 같은 빈칸을 되묻는다. 답을 받기 전에 빈칸을 채우게 되니 다시 묻는 횟수가 줄어든다.

첫 답은 초안이다

OpenAI 안내서는 질문을 한 번에 완성하려 하지 말고, 답을 보고 고쳐 가며 다듬으라고 권한다 (2026-11-08 확인). 같은 대화창에서 이어서 말하면 AI는 앞의 내용을 기억하고 고친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한다
너무 길다	세 줄로 줄여 줘
어렵다	중학생도 알아듣게 다시 설명해 줘
딱딱하다	더 다정한 말투로 바꿔 줘
하나만 마음에 든다	두 번째 안을 바탕으로 더 자세히
엉뚱하다	내 말은 그게 아니라, ○○ 이야기야
믿기 어렵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려 줘

한 번에 하나만 고친다

> **컴맹 집사의 경험**
>
> "디자인 바꾸고, 질문 추가하고, 공유 버튼 넣어 줘"를 한꺼번에 시키면 무엇 때문에 망가졌는지 알 수 없었다. 한 번에 하나만 부탁하고, "이 부분만 고치고 다른 건 건드리지 마"라고 범위를 정하자 일이 훨씬 쉬워졌다. (출처: 와우굿앱 『누구나 따라 하는 쉬운 웹앱 제작 실전 가이드』)

앱이 아니어도 같다. 여행 일정을 고칠 때도 "둘째 날 점심만 바꿔 줘"처럼 한 군데씩 고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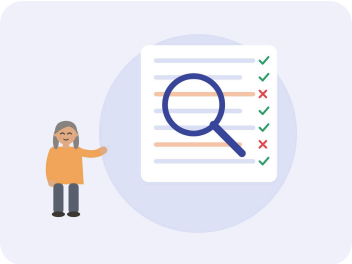
대화창을 새로 열 때

주제가 바뀌면 새 대화를 연다. 앞의 이야기가 섞여 엉뚱한 답이 나오는 것을 막는다. 새 대화에서는 앞에서 정한 조건을 한 번 더 적어 준다.

✎ 그대로 따라 쳐 보세요

다음 달 어머니 칠순 가족 식사 자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답하기 전에, 좋은 계획을 짜려면 저에게 무엇을 더 물어봐야 하는지 질문 다섯 개를 먼저 해 주세요.

4장. 틀린 답 알아보기



AI는 틀린 말도 자신 있게 한다

AI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지어낼 때가 있다. 세 서비스 모두 화면이나 도움말에서 답이 틀릴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2026-11-07 확인). 말투가 자신 있다고 해서 맞는 답은 아니다.

특히 의심할 다섯 가지

이런 답	왜 위험한가	어디서 확인하나
숫자 (금액, 날짜, 마감)	해마다 바뀌고, 옛 정보가 섞이기 쉽다	정부24, 복지로, 해당 기관 누리집
법과 세금	조건 하나로 결론이 바뀐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약과 병	사람마다 다르다	의사, 약사
가게·장소 정보	문을 닫았거나 시간이 바뀌었을 수 있다	지도 앱, 가게에 전화
출처, 책 제목, 사람 말 인용	없는 것을 지어낼 수 있다	직접 검색해서 실제로 있는지 본다

확인하는 세 가지 방법

1. 근거를 묻는다: "이 내용의 근거나 출처를 알려 줘." 출처가 나오면 그 주소를 직접 열어 본다. 주소가 열리지 않거나 내용이 다르면 그 답은 믿지 않는다.
2. 틀릴 만한 곳을 짚게 한다: "방금 답에서 틀렸을 수 있는 부분이나 꼭 다시 확인할 부분을 알려 줘."
3. 다른 AI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 두 답이 같으면 조금 더 믿을 만하고, 다르면 그 부분을 공식 안내로 확인한다.

> **컴맹 집사의 경험**
>
> 같은 질문을 서로 다른 AI 두 곳에 해서 겹치는 답과 참신한 답을 비교하면 생각이 넓어진다. 개집사 앱의 질문 7개도 두 AI에게서 후보 20개쯤을 받아 골랐다. 그리고 AI가 "수정했습니다"라고 해도 직접 열어 보면 그대로인 경우가 꽤 있었다. 그 뒤로는 내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한다. (출처: 와우굿앱 『누구나 따라 하는 쉬운 웹앱 제작 실전 가이드』)

결정은 사람이 한다

AI의 답은 상담 전에 질문을 정리하는 데 쓰고, 결정은 공식 안내와 전문가 말을 듣고 한다. 돈이 들거나 몸에 관한 일은 더 그렇다.

✎ 그대로 따라 쳐 보세요

```
방금 알려 준 내용 중에서 틀렸을 수도 있는 부분이나, 꼭 다른 곳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짚어 주세요. 확인할 곳도 알려 주세요.
```

5장. 넣지 말아야 할 것



질문 창에 넣지 않는 것

- 주민등록번호, 여권·운전면허 번호
- 계좌·카드 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 집 주소, 전화번호, 가족의 이름과 학교
- 병원 진료 기록, 검사 결과지 원본
- 다른 사람의 이름, 연락처, 사진이 담긴 대화 캡처
- 회사의 내부 자료, 고객 명단

바꿔서 쓰면 된다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바꿔서
김순자 어머니(010-1234-5678)께	70대 어머니께
서울 ○○구 ○○아파트 101동	서울의 아파트 단지
진료비 영수증 사진 통째로	필요한 항목만 옮겨 적기 (이름·번호 지우고)
단톡방 대화 캡처	대화 내용을 내 말로 요약해서

서류나 안내문을 요약해 달라고 할 때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 칸을 가리거나 지운 뒤에 올린다.

기록과 학습 설정은 서비스마다 다르다

세 서비스 모두 대화 기록을 남기지 않는 대화 방법과, 내 대화를 AI 학습에 쓰지 않게 하는 설정이 있다. 다만 이름과 자리가 서비스마다 다르다 (2026-11-07 확인).

서비스	기록이 남지 않는 대화	자세한 설명
ChatGPT	임시 채팅	『ChatGPT 처음 시작하기』 5장
Gemini	임시 채팅	『Gemini 처음 시작하기』 5장
Claude	시크릿 채팅	『Claude 처음 시작하기』 5장

설정을 바꿔도 처음부터 민감한 정보를 넣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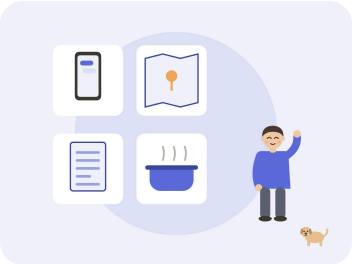
손주가 쓴다면

세 서비스 모두 13세 미만은 쓸 수 없는 등 나이 기준이 있다. 서비스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1~3권의 5장을 보자 (2026-11-07 확인).

✎ 그대로 따라 쳐 보세요

아래 글에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처럼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이름], [번호]처럼 바꿔 주세요.
(여기에 글을 붙여 넣되, 처음부터 진짜 번호는 넣지 마세요)

6장. 생활에서 써 보기 4가지



1) 문자 답장

칸	채울 말
할 일	답장을 써 줘
배경	받은 문자 내용(이름·번호 빼고), 상대와 나의 관계, 내 뜻(거절, 감사, 사과)
모양	두세 줄, 존댓말·반말, 이모티콘 여부

✎ 그대로 따라 쳐 보세요

동창 모임 총무에게서 이번 달 모임에 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손주를 봐 줘야 해서 못 간다고 정중하게 답장하고 싶어요.
다음 모임에는 꼭 가겠다는 말도 넣어서, 존댓말로 두세 줄로 써 주세요. 답장 두 가지를 보여 주세요.

2) 여행 계획

2장의 질문 틀을 그대로 쓴다. 받은 일정의 운영 시간, 입장료, 휴무일은 해당 장소 누리집이나 지도 앱에서 꼭 다시 확인한다 (4장).

3) 서류·안내문 요약

관공서나 은행에서 온 긴 안내문은 개인정보 칸을 지운 뒤 붙여 넣고 요약을 부탁한다.

✎ 그대로 따라 쳐 보세요

아래 안내문을 읽고 세 가지로 정리해 주세요.
1. 내가 해야 할 일 2. 마감 날짜 3. 준비물
쉬운 말로, 모르는 낱말은 괄호 안에 풀어 주세요. 안내문에 없는 내용은 지어내지 마세요.
(여기에 개인정보를 지운 안내문을 붙여 넣기)

마지막 줄 "안내문에 없는 내용은 지어내지 마세요"가 중요하다. 요약한 뒤에는 날짜와 금액만큼은 원문과 한 번 맞춰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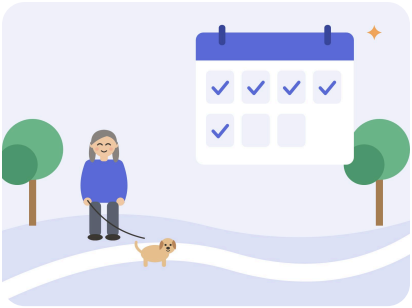
4) 병원 가기 전 질문 정리

AI에게 진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물어볼 것을 정리하는 데 쓴다.

✎ 그대로 따라 쳐 보세요

다음 주에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요. 진단은 하지 말고,
짧은 진료 시간에 의사 선생님께 꼭 물어볼 질문 5가지와, 미리 적어 가면 좋은 내용(언제부터, 어떨 때 아픈지 등)을 목록으로 만들어 주세요.

7장. 7일 따라 하기



하루 10분이면 된다. 쓰는 AI는 무엇이든 괜찮다. 끝낸 날은 칸에 표시하자. 일주일 뒤에는 답이 엉뚱할 때 "역할·할 일·배경·모양" 네 낱말만 떠올리면 된다.

날	오늘 할 일	했어요
1일	"여행지 추천해 줘"를 보내고, 네 칸 질문으로 다시 보내 두 답 비교하기	☐
2일	친구에게 보낼 문자를 네 칸으로 부탁하고, "더 다정하게"로 한 번 고치기	☐
3일	원하는 말투의 예시를 하나 넣어 문자를 다시 부탁하기	☐
4일	"먼저 질문 다섯 개를 해 줘"로 가족 행사 계획 세우기	☐
5일	받은 답에 "틀렸을 수 있는 부분을 짚어 줘" 보내고 한 곳을 직접 확인하기	☐
6일	개인정보를 지운 안내문 하나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보기	☐
7일	같은 질문을 다른 AI에도 해 보고 두 답 비교하기	☐

부록

질문 틀 카드 (잘라서 쓰기)

칸	나의 질문
역할: 누구처럼 답할까	
할 일: 무엇을 해 줄까	
배경: 내 사정, 꼭 지킬 것, 빼야 할 것	
모양: 길이, 표·목록, 말투	
덧붙이기: 모자란 정보는 먼저 물어봐 줘	

고쳐 말하기 10문장

1. 세 줄로 줄여 줘.
2. 중학생도 알아듣게 다시 설명해 줘.
3. 더 다정한 말투로 바꿔 줘.
4. 표로 정리해 줘.
5. 두 번째 안을 바탕으로 더 자세히 써 줘.
6. 이 부분만 고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둬.
7. 답하기 전에 더 알아야 할 것을 먼저 물어봐 줘.
8.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려 줘.
9. 틀렸을 수 있는 부분을 짚어 줘.
10. 내가 준 글에 없는 내용은 지어내지 마.

용어 풀이

용어	뜻
질문(프롬프트)	AI에게 보내는 글. 영어로 prompt
역할	AI가 누구의 입장에서 답할지 정해 주는 말
배경	내 사정과 조건. 공식 안내서의 context
모양	답의 길이·형식·말투. 공식 안내서의 format
예시	원하는 답의 본보기
새 대화	앞의 이야기를 지우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대화창
임시·시크릿 채팅	기록이 남지 않는 대화 방법

판권 · 출처

AI에게 잘 묻는 법 와우굿앱 무료 전자책 · AI 처음 시작 6권

- 판: v1.0
- 확인 날짜: 2026-11-08 (공식 질문 안내서 기준. 서비스 기능은 1~3권의 2026-11-07 확인 내용)
- 펴낸 곳: 와우굿앱 (wowgoodapp.com)
- 지은이: 컴맹 집사
- 삽화: 와우굿앱이 코드로 직접 그림
- 이 책은 AI의 도움을 받아 쓰고 사람이 직접 검수했습니다.
- 이용 범위: 무료. 개인 이용과 링크 공유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고치거나 다시 파는 것은 금지합니다.
- 상표 안내: ChatGPT, Gemini, Claude는 각 회사의 상표이며, 이 책은 각 회사와 관계없는 독립 안내서입니다.
- 면책: 이 책은 확인 날짜 기준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AI의 답은 틀릴 수 있으며, 건강·돈·법에 관한 결정은 전문가와 공식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공식 질문 안내서 (2026-11-08 확인)

- OpenAI, Prompt engineering best practices for ChatGPT: https://help.openai.com/en/articles/10032626
- Google, Prompting guide 101 (Gemini): https://workspace.google.com/resources/ai/writing-effective-prompts
- Google, 5 tips for writing great prompts for Gemini: https://blog.google/products/workspace/google-gemini-workspace-ai-prompt-tips/
- Anthropic, Be clear, direct, and detailed: https://platform.claude.com/docs/en/build-with-claude/prompt-engineering/be-clear-and-direct
- Anthropic, Best practices for prompt engineering: https://claude.com/blog/best-practices-for-prompt-engineering

서비스별 기록·나이 안내 (2026-11-07 확인, 1~3권 출처)

- ChatGPT 임시 채팅 FAQ: https://help.openai.com/en/articles/8914046-temporary-chat-faq
- Gemini 앱 개인정보 보호 허브: https://support.google.com/gemini/answer/13594961?hl=ko
- Claude 시크릿 채팅: https://support.claude.com/en/articles/12260368

와우굿앱의 다른 무료 전자책

ChatGPT·Gemini·Claude 처음 시작하기(1~3권), 캡컷·수노 처음 시작하기 · wowgoodapp.com